

# 전남도, 행정통합 과제 집중점검...7월 출범 준비 속도

전남도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통합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도청 새재빌딩에서 환경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6차 주요 통합과제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점검회의로, 당선인 인수위원회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통합 과제별

## 데이터 전환·시스템 개편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총력 특별법 특례·사무이양 등 후속 통합과제 발굴도 지속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이뤄지는 데이터 전환과 행정시스템 개편에 따라 일부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남도는 6월 한 달 동안 TV와 자막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민원시스템 일시 중단 일정과 대체 이용 방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까지 자치법규 정비와 정보시스템 통합, 조직·인사 체계 개편 등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기반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민등록과 인감, 지방세, 복지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예상되는 행정 수요 변화와 권한 조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통합과제를 조율하고 있으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군과 자치구

기능이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따른 권한이양 특례를 비롯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무이양, 법정계획 통합 등 후속 통합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환경연 행정부지사는 “6월 3일 선거 이후에는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과 광주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

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행정·재정·정보시스템 분야의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권한 확보와 행정체계 정비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와 산업, 교통, 복지 등 주요 분야에서 특례를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추가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지난 29일 광주 서구 금호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를 찾은 주민들이 구강 검진, 치매 검사, 기초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통합건강캠프는 서구보건소, 광주보건대학교, 대한결핵협회 등이 참여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 실·국 7개까지 운영

###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정원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6월 5일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의 교육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 지역의 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조직의 위상과 실무역량을 대폭 보강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통합시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구 설치 특례가 마련된다.

특별법에 따라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용 수준으로 확대하되, 양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교육 특성에 따른 행정 전문성을 계승하기 위해 2개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7개의 실·국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2개국 추가 설치 특례는 내년 12

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광역 교육행정체제 확대에 따라 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정책 설계 및 집행의 복잡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부교감 2명의 직급을 서울시교육청에 준하는 ‘고위 공무원 기능급’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간 양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했던 정책·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을 신설한다. 이로써 통합시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조정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된다.

입법예고안은 이날부터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7월 1일 통합시교육청 출범 시점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이 대통령 “투표 포기, 국민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 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6·3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며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라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선거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경구를 소개하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을 향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국민이 말한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

### “이 말 불편한 집단 있다면 구태 기득권”...투표 독려

할, 총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총직함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

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이던 30일에도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라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이어 “투표는 민주주의 생명력”이라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9일과 30일 시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최종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본투표에도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호 기자 solee23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 여성친화마을 수행 단체 6곳 선정

### 기획 1곳·특화 5곳...안전문화·성평등 양육 환경 조성

광주시는 최근 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수행 단체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실현을 위해 광주형 대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기획공모’ 부문과 5개 자치구별 특성에 맞춘 ‘특화공모’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기획공모 부문은 참신아이소시지협동조합·동음마을기후환경연합동체 이음·두루모아문화공공동체·새광주시민방송 등 4개 단체 네트워크인 ‘안전넷 여친넷’을 선정했다. ‘안전넷 여친넷’은 신안 등 등 기후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주도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리포터 양성, 라디오 제작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화공모 부문에는 △동구 ‘친절한 페

미’의 동네책방 거점 성평등 인문학 강좌 △서구 ‘새나기온’의 성평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남구 ‘남구미리네’의 마을여성 기자단 육성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의 가족 합창단을 통한 성평등 양육 환경 조성 △광산구 ‘아름다운주민자치회’의 생태자원 활용 여성 생태해설사 양성 사업 등 5군을 선정했다.

시는 기획공모 부문 선정단체인 ‘안전넷 여친넷’에 사업비 2500만원을, 특화공모 부문 선정단체에 사업비 각 1000만원을 지원해 총 7500만원을 교부한다. 선정 단체들은 6월 중 보조금을 교부받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전담 활동가를 배치하고,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점검(모니터링) 교육을 지원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전남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조기 접수...영농철 이전 공급

전남도가 도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조기 접수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회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건강한 토양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에게 유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기질비료는 작물의 생육·수량·품질 등과 직결되는 만큼, 작물별 생육 시기를 맞춰 적기에 공급·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4월 초 시군·농협 등 관계자와 대책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에 신청 시기 조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표준사업 지침이 개정돼 사업 신청 기간이 6~7월로 변경됐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이현규 기자

## 전남 1분기 합계출산율 1.30명 ‘전국 1위’ 기록

### 출생아 수 15.3% 증가...출산 반등 흐름 유지

전남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늘면서 저출생 흐름 속에서도 전남의 출산 지표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1분기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은 2023년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25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28명보다 341명 늘었다. 증가율은 15.3%다.

전남도는 이 같은 흐름이 임신·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 정책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년 동안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기초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 이후 추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곳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도비를 추가 투입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입력 검사 확대, 난임시술 횟수 제한 폐지, 가입력 보존사업,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도 병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임신·출산·양육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전남아이북’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과 도·시군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출산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출산율 반등과 출생아 증가 흐름을 유지해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춤꾼들의 무대’...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 개막

### 4일 5·18민주광장 일일 등서

광주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5·18민주광장에서 ‘2026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가 개최한다.

‘스트릿컬처 페스타’는 국내외 정상급 댄서 1300여명이 참여하는 치열한 댄스 대결무대인 케이팝(K-POP) 댄스, 시민들이 직접 호흡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다.

‘베를린인업’은 4일부터 나흘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힙합·워킹·팝·락·오픈스타일 등 총 5개 장르에서 전 세계 실력파 댄서 1300여명이 자존심을 걸고 짜릿한 1대 1 배틀을 선보인다.

5일에는 미래의 스트리트댄스 무대를 이끌어갈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키즈&유스 배틀’이 열려 세계적 차세대 댄서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5일에는 최근 전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팝 열풍을 반영한 ‘케이팝 댄스 경연’이 새롭게 신설돼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6일에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구성된 37개 댄스팀이 한계를 뛰어넘는 화려한 단체 퍼포먼스 경연을 펼친다. 양동민 기자